

“시간이 많지 않아. 그들도 이제 모두 일어났으니”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2)

마치 커다란 금빛의 먼지 덩어리처럼 보였으나, 그 존재는 분명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어떤 단위로도 세거나 설명할 수 없을 거 같이 웅장한 금빛 인간이었다. 무니는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존재가 자신의 한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그것은 막 바다에서 빠져나와 어마어마한 파도를 일으키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그 존재는 땅으로 올라왔다.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다시 회오리치기 시작한 먼지들은 그 존재가 한 발자국씩 움직일 때마다 세차게 휘날렸다가 찾아들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이 스쳐간 곳에는 금빛을 잃은 거친 먼지들만이 흔적처럼 쌓여갔다. 시간이 흔적이란 이런 것이라. 무니는 자신이 아마도 이 신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 몸이 떨려왔다.

“쿵!” 그 금빛 존재가 갑자기 멈춰 섰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회오리바람도 다시 불었다. 천둥과 번개, 공중으로 솟아 오르는 물방울들은 마치 한 폭의 움직이는 그림처럼 장관을 만들어냈다. 움직임을 더욱 빠르게 이어졌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가능키 힘들 정도로 높은 산 하나가 우뚝 솟아왔다. 무니는 한껏 고개를 쳐들고 그 산의 꼭대기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분명 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도 한참을 더 솟아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또 한 번의 고요가 찾아왔다. 바람 없는 공간은 마치 정지된 듯 했고, 낮도 밤도 아닌 하늘은 보랏빛이었다. 움직임을 잃은 물방울들이 땅 속 깊숙이 스며들어 어딘가로 흘러들어 가는 모습뿐이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무니는 낮이 나간 듯 말했다. 실로 믿기 힘들 순간들이었다. 과연 누군가에게 이 일을 언어로써 설명할 수 있을까. 무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일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는 있어도, 믿게 하려면 힘들 것이다. 그는 다시 저 멀리 우뚝 솟아 있는 산을 쳐다보았다.

“수메루 산이라고 부르게 될까. 저 산도?”
눈물나게 반가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지요?”
“하긴 이름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기 마련이니까. 저 산이 갖게 될 마지막 이름은 수메루가 아닐 지도 모르지.”

노인은 무니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못 들은 척 하는 것인지 대답 대신 탄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매우 귀에 익었다.

“누구냐고 물었잖아? 내 말 못 들었어? 왜 대답이 없는 건데!”

그제야 노인은 시선을 무니에게로 돌렸다. 그는



차가워 보일 정도로 하얀 피부와 온통 새하얀 백발 때문에 한 눈에도 늙은이처럼 보이긴 했지만, 동글동글한 이목구비와 매끄러운 피부만 봐서는 어린 아이처럼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외모이기도 했다.

“이 꼬마 녀석아.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네가 알 수는 있을 거 같으냐?”
“뭐라고? 언제 봤다고 나더러 꼬마라는 거야?”
“그럼 네가 꼬마가 아니면 나처럼 영감쟁이라는 것이냐?”

노인은 빙글빙글 웃으며 대꾸했다. ‘도대체 뭐야! 이 영감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꼬마라고 불려서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내내 외로웠던 무니는 그 노인이 어딘가로 또 사라질까봐 강하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

“그러는 너는 누구냐?”
이벤엔 노인이 물었다. 무니는 당신도 당해보라는 투로 대답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영감이 알 수 있을 거 같아?”
“허. 그 녀석! 성질 한번 고약하구나.”

노인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때였다. 낯익은 풀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칸터카!’ 무니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제야 온 게로구나. 아상티야.”

노인은 그 풀피리 소리를 내며 걸어오는 짐승을 반갑게 맞이했다.

“아상티?”
무니의 눈동자는 노인의 시선을 따라갔다. 아상티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 짐승의 정체는 갈색 말이었다. 윤기가 나는 털에 초롱초롱하긴 하지만 좀 작은 듯한 말의 눈동자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혹시 너 남카야?”
무니의 말에 갈색 말은 또 다시 풀피리 소릴 내며 꼬리를 흔들었다.

“하하하. 너 남카가 맞구나!”
무니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며 말에게 다가갔다. 갈색 말 역시 계속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아상티. 너는 이름이 참으로 많구나. 남카라... 그래, 그 이름도 제법 잘 어울리는 거 같은걸.”
노인 역시 웃으며 말했다. 무니는 남카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흐르고 있던 눈물을 닦았다. 너무 반가웠던 것이다.

“근데 영감은 남카랑 무슨 사이야? 이 녀석을 아상티라고 부르던데?”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어 보였다.

“너는 내게 궁금한 게 그런 것들뿐이냐? 내가 누군지, 나와 아상티가 무슨 사인지 말이야.”
무니는 노인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

라 고개를 가웃했다. 노인은 보랏빛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보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냄새나 촉감도 전혀 느낄 수 없던 암흑이 이렇게 보랏빛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보거라. 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은 산과 바다를.”

무니는 노인이 가리키는 산과 바다를 쳐다보았다. 문득 조금 전에 느꼈던 전율이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도대체 여긴 어디지?”
또 다시 멍해졌던 무니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노인에게 질문했다.

“그래. 이곳이 새로운 세계라는 건 알 수 있겠어. 아니,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야? 영감은 알고 있지?”

“허. 내가 그걸 어찌 단단 말이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니는 성큼성큼 노인 쪽으로 걸어가 그의 손을 덥서 붙잡았다. 생각했던 대로 보들보들 매끄러운 손이었다.

“영감이 날 이리로 데리고 왔잖아. 이 손과 그 목소리.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아요?”
“뭐? 뭐라고? 으하하하.”
노인은 무니의 다부진 표정을 보더니 소리 내 크

게 웃기 시작했다. 아직도 노인의 손을 잡고 있던 무니는 어안이 병병해서 멍하니 서있었다. 노인은 또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그들도 이제 모두 일어났으니 말야. 이곳의 존재를 눈치 챘겠지. 문제는 크리슈나야. 이 꼬마 녀석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으니...”

노인은 무니를 슬쩍 쳐다보더니 또 싱긋 웃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더니 얼마나 재미난 일인가. 그렇지 않냐, 요 꼬마 녀석아?”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띤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의 무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니는 노인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한편, 혼돈의 대양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파도는 크고 작은 바위를 집어삼켰고, 구름은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렸으며, 빗줄기는 땅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거센다. 노인의 말처럼 크리슈나가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몸을 곧추세운 거대한 뱀 아난타는 긴 명상에서 깨어나는 크리슈나를 지키기 위해 잔뜩 경계를 한 눈빛이었다. 어떤 방향도 빠짐없이 지켜보는 천 쌍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반짝거렸다. 쫓겨온 가까이 날아오지 않던 크리슈나의 새, 가루다 역시 아난타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순간, 아난타의 한쪽 눈이 크리슈나의 머리맡에 있던 수레바퀴로 향했다. 금색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난타는 이 예상 밖의 움직임에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금방 원래 쳐다보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조금씩 구름이 걷혀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군.”
드디어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난타와 가루다의 신이 깨어난 것이다. 가루다는 마치 기쁨을 표현하듯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아난타. 비데하는 어떤지 모르겠어. 날 깨우는 반두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말이야.”
이제까지의 혼란은 남의 일이라는 듯 평화롭고 일상적인 말투였다. 크리슈나는 두 쌍의 팔을 들어 올려 기지개를 한 번 쭉 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푸른 피부색에 젊은 미남자인 그는 금색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크리슈나는 자신의 옷자락을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말했다.

“나는 누군가를 찾아야 해. 아마도 어린 소년일 거야. 그 소년에게는 전생이 없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그때 하늘 높이 날아올랐던 가루다가 크리슈나 쪽으로 다가왔다. 새와 상극인 아난타는 일시에 천 쌍의 눈을 감아버렸다.

“조금 이르게 눈을 떠서 아집군.”
크리슈나는 가루다의 등에 올라타며 자신의 머리맡에 있던 수레바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치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 그건 자연스럽지가 않아.”
가루다가 날개 짓을 시작했다. 잠시 후, 혼돈의 대양에 남은 건 파리를 튼 채 고개를 숙인 아난타뿐이었다.

불자 정보

861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평수 : 170평(5층 85평, 6층 85평)
- 법당 : 6층(옥상 70평 사용)
- 보증금 6천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고급, 즉시법회가능
- 대가람 소입관계로 양도함

010-9332-1719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40-7(연화정사)
- 평수 60평
- 상가 2층건물로써 단독 사용가능
- 전세: 2500만원, 월세 70만원
- 부처님과 가전제품은 본인이 가져가며 내부 시설비는 없음

011-9527-6480

토굴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 목조 건물(법당, 방 3개)1동
- 토굴 사용권 이전
- 도립공원 토지사용권 이전
- 가액 : 500만원

010-7607-7488
010-8673-7686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 사찰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0-2563-139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안양호계동 경수산업도로 대로변재래시장이근
- 평당 : 24평, 5층 건물 3층
- 구조: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 (170), LED 인등 (300)
- 방2개, 주방, CCTV대 설치
- 보증금 13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임야 8만 4천평

010-8369-3569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자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용자 10억)
- 중환자 수송, 요양집으로도 적격

011-726-4711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황간 IC에서 10분거리
- 부지 600평
- 법당 목조 20평, 산신각 목조 3평
- 요사채 3동, 차고
- 사리탑 통일비, 조경우수
- 가액: 총 7억

011-510-6014

전통사찰로써 목조건형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 소입 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11억 예산 (서울안양 인접 의왕 위치)

010-3678-2567

사찰(금)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갖길 호조건
- 사찰 전사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을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평가격 : 30만원)
- 전사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사관 자금만 받고 금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함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